**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방한 (2014년 11월 10일 ~ 14일)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 모두발언문**

이번 방문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 특별보고관으로서 저의 네 번째 방한입니다. 제가 특별보고관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협조해주신 한국 정부, 그리고 이번 방한 기간 동안 지지를 표명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이번 방한 기간 동안, 저는 외교부, 법무부, 통일부,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국회 인권포럼 및 외교통일 위원회 위원들, 서울 시장님, 국가인권위원회 대표들, NGO, 외교관 등 고위 인사와 면담을 가졌습니다.

또한 이번 방한 중 통일연구원에서 주최한 샤이오 인권포럼에도 참석했습니다. 저를 이 중요한 포럼에 초청해 주시고 수년간 저의 임무 수행을 지지해 주신데 대해 통일연구원에게 감사 드립니다.

이번 방한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의 주요 보고서 발간 이후에 다음 단계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는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의 오래된, 그리고 현재도 진행중인 패턴의 많은 부분이 국제법 기준상 반인도적 범죄를 성립한다고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및 반인도적 범죄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이를 겨냥한 효과적인 제재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유엔총회와 인권이사회 (HRC)의 공동의 압박과 철저한 조사 덕분에, 이제 우리는 북한이 대화에 열린 자세를 취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두 개의 트랙으로 된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심각한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과, 피해자를 포함한 북한 주민들의 삶에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기술적 협력을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 및 안정이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2주 전 저는 뉴욕에서 진행되던 유엔총회 세션 중 북한 고위 관계자 대표단을 만났습니다. 10년 전 특별보고관의 임무 수행이 시작된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북한은 가까운 미래에 본격적인 방북을 하도록 저를 초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북 허용에는, 유럽연합이

이끄는 북한인권 결의안에 담긴 내용 중 북한 최고지도자에게 책임을 묻는 조항과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가능성을 언급한 두 조항을 삭제해달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유엔총회 제 3위원회의 표결을 며칠 앞둔 상황에서, 저는 분명히 밝힙니다. 책임을 묻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별보고관의 방북 허용에는 전제조건이 없어야 하며, 결의안 채택과 무관해야 합니다. 제가 이번 주 만난 모든 대담자들도 이러한 입장을 완전히 같이 하였습니다. 이제, 책임에 대한 프로세스의 기반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방한 동안 진행된 면담에서 남북한 통일에 대한 국가적 열망이 여전하며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통일이 실현된다면 인권침해의 책임을 묻는 일이 통일이라는 최종 목표 달성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입니다. 저는 최근 설치된 통일준비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봅니다. 다음 방한 때 위원회 위원들과 직접 만나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국제사회는 지난 제 2차 정례검토 동안 총 268개 권고안 중 북한이 수용한 113개를 북한이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북한 주민의 전반적인 삶이 즉각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체계적이며 뚜렷한 목표를 가진 절차를 수행함으로써 이를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정치적 고려와 무관하게 인도적 차원의 지원 등을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에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해온 일의 연장으로 유엔 인권이사회로부터 임무를 부여 받은 현장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현장 사무소는 두 개의 트랙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외교부 및 서울시 실무진과 현장 사무소 설치를 위한 행정적 사항을 논의해왔습니다. 관련 기관과의 협력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곧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금번 방한 중, 납북된 한국인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저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및 관계당사자와 협력하여 국제 납북 문제 및 강제 실종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을 향후 적절한 시일 내에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남북한 간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논의가 북한에 의해 결렬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남북한 간의 대화가 양측 국민이 긍정적 방향으로 관계를 쌓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산가족을 위해 양측 간의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기를 희망합니다.

양측 관계가 다소 불안정함에도 한국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계속한다는 점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북한 주민이 해외로 보내져 북한 정부에 의한 강제 노역을 하고 있다는 보고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보며 해당 사안을 향후 좀 더 면밀하게 살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작성에 지대한 기여를 한 인권 관련 NGO 역할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향후 남아있는 일을 계속해나가는 데 NGO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특히 책임을 묻고 북한에 필요로 하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일에 지대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사항을 바탕으로 저는 2015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상세 보고서를 마련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곧 일본에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일본을 방문하여 파악한 사항도 상세 보고서에 포함됩니다.

다시 한번 이번 방한 기간 시간을 내어 면담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공통의 대의를 위한 협력을 지속해나가길 기대합니다.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마주르키 다루스만(인도네시아)은 2010년 8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임명되었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어떤 정부나 기관과 무관하게 개인 역량으로 임무를 수행합니다. 과거 3인으로 구성된 고 부토 파키스탄 총리 암살 사건 진상 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였으며 2013년 스리랑카 관련 유엔 사무총장 전문가 패널 의장을 역임하였습니다. 2013년 3월부터 인권이사회의 임명을 받아 북한 내에서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3인으로 구성된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 (UN Human Rights), 국가별 페이지 – 북한:

http://www.ohchr.org/EN/countries/AsiaRegion/Pages/KPIndex.aspx

추가 정보 및 **언론사의 문의**는 기욤 파이플리 (Guillaume Pfeiffle) (+41 79 752 0483 / gpfeiffle@ohchr.org)로 연락 바랍니다 (영어만 가능).

**유엔 인권** 관련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unitednationshumanrights

**트위터:** http://www.twitter.com/UNrightswire

**구글+:** gplus.to/unitednationshumanrights

**유튜브:** http://www.youtube.com/UNOHCHR

**스토리파이:** http://storify.com/UNrightswire